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의 성격유형과 교육만족도의 관련성

김창숙 · 천세희¹ · 조미숙²울산과학대학교 치위생과 ·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 ²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Chang-Suk Kim · Sae-Hee Cheon¹ · Mi-Suk Cho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 ²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Corresponding Author: Mi-Suk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Gokcheon-ri, Ungchon-Myeon, Ulju-gun, Ulsan, Korea 689-784; Tel : +82-52-270-0297, +82-11-9302-4935; Fax : +82-52-270-0239; E-mail : cms4935@ch.ac.kr

Received: 14 August 2014; Revised: 12 November 2014; Accepted: 8 December 2014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898 students in Busan, Gyeongnam, and Ulsan from March 2 to 25, 2014.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struments used personality type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The personality types was adapted from Korea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that was modified by Lee on the basis of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ysenck & Eysenck, 1971).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4 questions including extroversion factors(18 questions) and neurotic tendency(26 questions). The questionnaire was score by Likert 5 scale. Cronbach alpha was 0.835 in the study. The neurotic tendency consisted of 26 questions and the higher score showed the higher neurotic tendency. Cronbach alpha was 0.927 in the study. The instrument for satisfaction of education was adapted from Kim and Go and partly modified. The instrument was categorized into dental hygiene department satisfaction(6 questions), major satisfaction(6 questions), facilities satisfaction(4 questions), lecture satisfaction(7 questions), and faculty satisfaction(4 questions). The instrument was scored by Likert 5 scale. Cronbach alpha of education satisfaction was 0.928 in the study.**Results:** Extroverted students showed 3.70 point which was the highest score in the department satisfaction($p<0.001$). Less neurotic students showed 3.68 point which was the highest score in the department satisfaction($p<0.001$).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ajor satisfact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p<0.01$). The personality types that affected the education satisfaction were related to the extroverted students and less neurotic students($p<0.01$).**Conclusions:** The personality types had much influences on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and academic accomplishment.**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education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s**색인:** 개인성격, 교육만족도, 치위생(학)과 학생

서론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학생 시기는 심리발달 단계 중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직업의 선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¹⁾.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²⁾. 대학생

들은 재학 과정 중에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와 상급학교의 진학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 시기의 학업성취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능, 적성, 선행학습의 정도, 학생 개인의 특성에서부터 학교의 교육조건, 교수의 역할과 기대 및 학생의 가정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3,4)}. 그 가운데 학생 개인의 특성 안에는 성격이 포함되고, 성격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 및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⁵⁻⁷⁾.

김⁸⁾은 성격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신적 성향’을 의미하는 개인의 고정적 기질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개인의 성격은 유전적·생리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된다고 하였다. 즉, 성격은 선천적인 인자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사회 환경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⁹⁾.

교육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 등¹⁰⁾은 치과대학생들은 과중한 수업량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매 학기 혹은 매 주 여러 가지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르는 학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전공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고, 박¹¹⁾은 간호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잦은 시험, 국가고시 준비 및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과 원⁹⁾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타 과에 비해 과중한 학업 량과 임상실습 및 국가고시를 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강과 이¹²⁾는 간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높은 취업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대학생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계열의 학생들보다 환자를 조력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 보건계열이나 의료계열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되어지며 학업 또는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개인마다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독특한 기질인 성격유형은 유사한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¹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루어져 왔던 외부의 여러 요인들보다는 내부의 요인 즉, 개인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¹³⁻¹⁵⁾들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성격유형과 관련하여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성격유형과 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다. 자료 수집은 직접 부산·경남·울산지역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교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승인을 받았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취지를 밝히고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12명을 제외하여 총 8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2. 연구도구

2.1. 성격유형 측정도구

성격유형은 이¹⁶⁾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ysenck & Eysenck, 1971)를 번역하여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성인용”으로 재편성한 문항 가운데 외향성 요인(18문항)과 신경증적 경향성(26문항)에 관한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원은 정서반응의 속도차원과 정서반응의 강도 차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두 가지 축이 교차되는 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¹⁶⁾. 즉 외향성향이 강한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에 보다 민감한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이 강한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¹⁷⁾.

선행연구에서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지만, 대상자들에게 이분법적인 응답의 부담스러움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 후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및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사용하였다. 외향성 요인에 관한 1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구하고 중앙값 이상의 점수를 외향적인 대상자로, 중앙값 이하의 점수를 내향적인 대상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도 외향성 요인과 동일하게 26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 신경증군과 고 신경증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에 대한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835이고, 신경증적 경향성에 대한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927로 나타났다.

2.2.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연구대상자의 교육만족도는 김과 고¹⁸⁾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이 도구에는 5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학과만족도(6문항), 전공만족도(6문항), 시설만족도(4문항), 강의만족도(7문항), 교수만족도(4문항)에 관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및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전체 교육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928$ 로 높게 나타났고, 세부항목인 학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755$, 전공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864$, 시설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897$, 강의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830$, 교수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0.882$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9.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격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만족도간의 상관성은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성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4%, 여자 97.6%, 학년은 1학년10.4%, 2학년 37.1%, 3학년 49.3%, 4학년 3.2%,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 졸업자 91.0%, 실업계 졸업자 8.1%, 기타 0.9%, 현재 거주지는 대학과 동일지역 거주자 61.4%, 타 지역 거주자38.6%, 학과 선택이유는 취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45.3%, 본인이 원해서 23.4%, 주변의 권유 20.0%, 기타 11.3%, 성적은 3.5~3.9가 37.8%, 3.0~3.4가 35.8%, 2.9이하 15.3%, 4.0 이상 11.1%, 외향성 요인은 외향적인 대상자 55.5%, 내향적인 대상자 44.5%, 신경증적경향성은 고 신경증군 51.6%, 저 신경증군 48.4%로 나타났다<Table 1>.

2. 성격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관련성

성격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관련성을 5개의 영역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898)

Category	N	%
Gender	Male	22
	Female	876
Grades	1st grade	93
	2nd grade	333
	3rd grade	443
	4th grade	29
		3.2
High school	Academic school	817
	Business school	73
	Other	8
Residential area	In the location of college	551
	Other than the location of college	347
Reason for choosing the major	By choice	210
	The advice around	180
	To find a job	407
	Other	101
		11.3
Score	Higher than 4.0	89
	3.5~3.9	304
	3.0~3.4	288
	Lower than 2.9	123
		15.3
Extraversion factors	Introverted	400
	Extrovert	498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435
	High neurotic group	463

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격유형의 하위개념인 외향성 요인과 신경증적 경향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즉, 외향적인 대상자와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교육만족도의 높게 나타났다. 외향적인 대상자는 3.70점으로 학과만족이 가장 높았고, 저 신경증군 대상자는 3.68점으로 강의만족이 가장 높았다.

3. 교육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교육만족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과 학과만족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이 있었고($r=0.643$, $p<0.01$), 강의만족과 시설만족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r=0.592$,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4.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유형을 독립변수 그리고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학과만족($OR=0.019$), 전공만족($OR=0.016$), 시설만족($OR=0.011$), 강의만족($OR=0.009$) 및 교수만족($OR=0.027$)으로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는 학과만족($OR=-0.005$), 전공만족($OR=-0.009$), 시설만족($OR=-0.009$), 강

의만족($OR=-0.008$) 및 교수만족($OR=-0.004$)으로 고 신경증군의 대상자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총괄 및 고안

오늘날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의 부작용으로, 대학의 학과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과를 중도 포기하는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와 조²⁰⁾는 현대교육에 있어서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중심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개인의 능력, 성격, 가정환경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성격에 대한 관심은 인간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어져 왔다. 성격은 행동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고, 성격의 진단과 측정을 위해서는 심리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많은 성격이론에 따라 측정과 진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²¹⁾.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성격이론들 가운데 Wunt의 이차원설과 Jung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성격의 차원이론을 체계화한 Eysenck의 성격검사¹⁶⁾를 이용하여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atisfaction levels with education

Variable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Satisfied with major			Satisfied with facilities			Satisfied with lectures			Satisfied with faculty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Extraversion factors	Introverted	3.44	.533	0.000***	3.10	.583	0.000***	3.41	.800	0.000***	3.50	.501	0.001***	2.84	.671	0.000***
	Extrovert	3.70	.553		3.35	.637		3.59	.783		3.63	.574		3.19	.786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3.67	.541	0.000***	3.36	.620	0.000***	3.64	.826	0.000***	3.68	.557	0.001***	3.09	.779	0.039*
	High neurotic group	3.49	.562		3.13	.610		3.39	.746		3.46	.515		2.98	.733	

* $p<0.05$, *** $p<0.001$, p-value was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Correlation of the satisfaction levels with education

Variable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Satisfied with major	Satisfied with facilities	Satisfied with lectures	Satisfied with faculty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				
Satisfied with major	.643**	-			
Satisfied with facilities	.384**	.367**	-		
Satisfied with lectures	.500**	.493**	.592**	-	
Satisfied with faculty	.319**	.387**	.312**	.443**	-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ysenck의 EPQ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는 모슬리 의학적 질문지(Maudsley Medical Questionnaire: MMQ)의 후속검사로 정서적 차원과 외향적·내향적 차원, 허위성차원,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²¹⁾. 이 검사는 1947년부터 시작하여 30여년의 연구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현재는 널리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성격차원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객관적 심리검사를 여러 계층의 피검자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준분석과 같은 고급 통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격이론과 구분된다¹⁶⁾. 이 연구에서는 Eysenck의 주요 성격차원에 속하는 내·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설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외향성 요인에서 외향적인 대상자가 55.5%로 내향적인 대상자에 비해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이 등¹⁰⁾의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의 결과로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와 정²²⁾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내향형이 53%로 외향형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저 신경증군이 48.4%, 고 신경증군이 51.6%로 나타나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고 신경증군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관련성은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저 신경증군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만족도의 하위개념으로 학과만족은 3.70점으로 외향적인 대상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의만족은 3.68점으로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외향적인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내향적인 대상자에 비해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 신경증군 대상자 또한 고 신경증군에 비하여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적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겨지며,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과 고¹⁸⁾는 치위생과에 대한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소신 지원한 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하였고, 적성과 취미는 개인의 성격을 잘 반영한 변수로 성격유형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격유형과 교육만족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전공만족과 학과만족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치위생(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및 만족감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준 결과로 여겨진다. 강의만족과 시설만족 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치위생(학)과의 수업 특성 상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많고, 최신 치과기자재 및 재료, 실험실습 등의 활용이 강의만족에 영향을 준 결과로 사료되어지며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와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내향적인 대상자와 고 신경증군의 대상자에 비해 학과만족, 전공만족, 시설만족, 강의만족 및 교수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은 학생들의 자질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²³⁾. 대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며, 불만족이 클 경우에는 자퇴, 편입, 휴학 등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²⁴⁾. 본 연구는 어떠한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에는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가 44.5%, 고 신경증군의 대상자가 51.6%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즉, 내향적인 대상자와 고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대학교육의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이들은 대학생활의 부정적응을 초래하고, 훗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또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ersonality types that influence education satisfaction

Variable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Satisfied with major			Satisfied with facilities			Satisfied with lectures			Satisfied with faculty		
	OR (95% CI)	p	VIF	OR (95% CI)	p	VIF	OR (95% CI)	p	VIF	OR (95% CI)	p	VIF	OR (95% CI)	p	VIF
Extraversion (Introverted: reference)	0.019 (0.002, 0.254)	0.000	1.015	0.016 (0.003, 0.194)	0.000	0.015	0.011 (0.004, 0.104)	0.002	1.015	0.009 (0.002, 0.116)	0.000	1.015	0.027 (0.003, 0.264)	0.000	1.015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reference)	-0.005 (0.001, -0.149)	0.000	1.015	-0.009 (0.001, -0.212)	0.000	1.015	-0.009 (0.002, -0.166)	0.000	1.015	-0.008 (0.001, -0.229)	0.000	1.015	-0.004 (0.002, -0.086)	0.008	1.015
	F=47.696(p<0.001) adjusted R ² =0.094			F=45.585(p<0.001) adjusted R ² =0.090			F=19.941(p<0.001) adjusted R ² =0.041			F=34.863(p<0.001) adjusted R ² =0.070			F=40.284(p<0.001) adjusted R ² =0.081		

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치위생과 학생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치위생 교육기관의 증설 및 학생의 증원으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초래²⁵⁾하고 있는 지금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연구로 여겨지며 향후 학과적응도를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대학생활과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는 성격유형과 교육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3.70점으로 학과만족 점수가 가장 높았고($p<0.001$). 저 신경증군은 3.68점으로 강의만족 점수가 가장 높았다($p<0.001$).
2. 전공만족과 학과만족은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p<0.01$), 강의만족과 시설만족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3. 성격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외향적인 대상자와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로 치위생(학)과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교육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성격유형에 따른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Lee SJ. Relationships between MBTI's typ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in engineering college. Asian J Educ 2013; 14: 189-212.
2. Jang KY, Kim BW.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1; 12: 539-58.
3. Busato VV, Prins FJ, Elshot JJ, Hamaker C. Intellectual ability, learning style,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success of psycholog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Pers Individ Dif 2000; 29: 1057-68.
4. Shin JC, Jung JS, Shin TS.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J

- Educ Admin 2008; 26: 287-313.
5. So YH.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on course interest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8; 20: 37-49.
6. Hojat M, Zuckerman M. Personality and speciality interest in medical students. Med Teach 2008; 30: 400-6.
7. Stilwell NA, Wallick MM, Thal SE, Bursleson JA. Myers-Briggs type and medical speciality choice: a new look at and old question. Teach Learn Med 2000; 12: 14-20.
8. Kim JM. Personality type, learning style, self-dire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J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0; 7: 1-25.
9. Han HS, Won Y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MBTI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of a region Jeonlodo and Gangneung. J Dent Hyg Sci 2007; 13: 25-30.
10. Lee YH, Lee YM, Kim D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dental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2009; 16: 179-96.
11. Park HS.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of nurs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1998.
12. Kang HI, Lee JR. The relation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stress, resilience, school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2012; 13: 1-12.
13. Oh HS.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dur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some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 777-86.
14. Jung GO, Choi GY, Bae JY.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 61-8.
15. Jung SH, Kim EH, Kim HS.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 69-78.
16. Lee HS.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eoul: Hakjisa; 2004: 53-68.
17. Larsen RJ, Ketelaar T.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 Pers Soc Psychol 1991; 61: 132-40.
18. Kim SS, Go EK.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6; 6: 139-45.
19. Lim YS. A study on career socializ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the focus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J Edu Res 1993; 8: 107-29.
20. Lee JH, Cho CH.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 results reported. Seoul: Seoul University 1979; 1: 11-115.
21. Seo DS. A study of the MBTI personality test and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1999.
22. Lee BI, Chung SR. The relationship in the personality thpe by the MBTI, the vocational personality by Holland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Edu Psycho 2003; 17: 124-45.
23.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2000; 1: 7-20.
24. Yu JS, Choi SY.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0; 10: 307-14.
25. Jung SH, Kim EH, Kim HS.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 69-78.

